

# 그린피 만족도 9.3점... “여기 가성비 최고야”

‘캐디 서비스’도 곳... 평균 9.1점 고득점

서원힐스 컨트리클럽(대표이사 이석호)이 스포츠동아와 XGOLF(대표 조성준)가 공동 주최하는 2019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후보로 선정됐다.

2004년 5월 개장한 27홀 골프장 서원힐스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고객들이 남긴 평가에서 전체 9.1점을 받았다. 캐디 서비스(9.1), 그린피 만족도(9.3), 식음료 만족도(9.2), 코스 관리(8.9) 등에서 모두 높은 평점을 얻었다.

서원힐스는 고객들의 평가 라운드를 거쳐 10대 골프장 최종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평가 라운드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내 골프부지 서비스 XGOLF 채널을 통해 16개 후보 골프장을 예약한 고객이 남긴 후기를 11개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반영한다. 평가 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서원힐스 컨트리클럽이 스포츠동아와 XGOLF가 공동 주최하는 2019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후보로 선정됐다. 세심하게 가꾸어진 코스와 캐디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친절 서비스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드넓은 코스를 자랑하는 서원힐스 전경(왼쪽)과 깔끔한 외관의 클럽하우스.



서원힐스 컨트리클럽이 스포츠동아와 XGOLF가 공동 주최하는 2019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후보로 선정됐다. 세심하게 가꾸어진 코스와 캐디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친절 서비스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드넓은 코스를 자랑하는 서원힐스 전경(왼쪽)과 깔끔한 외관의 클럽하우스.

운드 이용후기와 후보 선정 당시 이용후기 점수를 각각 50%씩 합산해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을 최종 선정한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자리 잡은 서원힐스는 회원제 못지않은 명품 퍼블릭 코스로 정평이 나 있다. 이스트 코스는 굴곡이 없는 넓은 페어웨이를 갖춰 초보자들이 선호하고, 웨스트 코스는 긴 전장으

로 젊은층 고객들이 즐겨 찾는다. 마지막 사우스 코스는 산악 지형으로 도전 욕구를 자극할 수 높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꼭 한 번 방문하는 곳이다.

서원힐스는 27홀 모두 라이트가 설치돼 야간 라운드가 가능하다. 최대 조도를 300룩스로 맞춰 내장객들이 불편함 없이 게임을 즐기도록 하고 있다. 야간 3부타임

은 11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또한 바로 옆 서원 아카데미에는 300야드 전장의 90타 석짜리 드라이빙 레인지가 갖춰져 있어 충분한 연습 후 실전 라운드가 가능하다.

서원힐스를 경험한 내장객들은 XGOLF 채널을 통해 잘 가꾸어진 코스가 인상적이었다는 호평을 남겼다. 8월 서원힐스를 찾은 최 모 씨는 “페어웨이와 러프 관리가 잘 돼 있었다. 여름철이었지만 잔디 상태가 좋았다”면서 “접근성도 뛰어나고 캐디분들의 서비스도 친절했다. 첫 티오프 이후 바로 다음주 예약을 해 한 번 더 라운드를 하고 왔다”고 만족했다.

지난달 방문한 김 모 씨는 “1년 2차례 정도 서원힐스를 찾는데 갈 때마다 처음 방문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골프장을 항상 세심하게 관리한다는 느낌을 받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지난 7월 진행된 한중청소년스포츠교류.

## 청소년스포츠교류단 중간다 쓰촨성 리산시서 탁구 등 3종목 친선전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홍)가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중국 쓰촨성 리산시에서 개최되는 제12회 한·중청소년스포츠교류에 배드민턴, 농구, 탁구 3종목 79명의 한국선수단을 파견한다.

이번 한·중청소년스포츠교류 선수단 파견은 지난 7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진행했던 초청 교류에 이어 진행되며, 아시아 스포츠의 주역인 한국과 중국 선수단 총 159명이 다시 한 번 경기력 향상 및 상호 친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청소년 선수들은 일주일 간 종목별 합동 훈련과 친선경기를 치르게 된다. 또한 낙산대불과 광말약 고택 관람, 문묘 및 성인례 체험 등 중국 현지 역사, 문화 탐방을 통해 양국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친목을 다진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 후원하는 한·중청소년스포츠교류는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제3회 교류 사업부터는 매년 양국 간 초청, 파견 형식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다양한 국제 스포츠 교류를 통해 한국과 중국 청소년 선수들이 경기력을 향상하고 양국 간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상호 유대를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형도 기자 hmyang0307@donga.com



“이번 대회 우승은 나야 나” KPGA 투어 SK네트비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출격을 앞둔 주요 선수들이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30일 제주도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클럽에서 포토콜을 진행했다. 임희정과 조아연, 박걸, 김자영2, 김지영2, 최혜진(왼쪽부터)이 제주도 특산품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 “ML 시장서 ‘스포츠테이프’ 사업 확신 얻었죠”

### 송재명 바록스스포츠 부사장

리우올림픽·베트남대표팀 등 후원  
마사지겔·기능성 화장품도 입소문



송재명 부사장

대화를 하다보면 말투와 몸짓만으로 상대의 삶을 가늠할 수 있다. 인터뷰 내내 그에게는 강한 신념이 읽혀졌다. 군 출신(예비역 소령)으로 스포츠산업에 발을 들인 바록스스포츠(대표이사 김학기) 송재명 부사장이 야기다. 바록스스포츠는 스포츠 마사지겔과 기능성 화장품, 스포츠테이프(위드테이프)를 제조·유통하는 업체다.

군인의 길만 바라보던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2010년이다. 국군체육부대(상무) 인사과장 보직을 받으며 스포츠산업·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많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전업을 결정한 계기였다.

30일 서울 송파구 법원로 회사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스포츠산업을 접하며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싶었다. 정확한 목표설정, 과감한 업무추진 등 군에서의 원칙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며 밝게 웃었다.

-스포츠테이프는 낯선 분야다. 어디서 가능성을 봤는지.

“MLB(미국프로야구) 엠블럼이 삽입돼 판매하는 스포츠테이프에서 힌트를 얻었다. 머천다이징(MD) 가능성을 확인했다. 축구(울산 현대, 대구FC, 상주 상무, 경남FC, 부산 아이파크, FC안양, 대전 시티즌), 야구(한화 이글스), 농구(전지랜드, 신한은행), 배구(대한항공) 등 다양한 종목에 구단 로고가 삽입된 스포츠테이프를 납품하고 있다.”

-스포츠테이프 이외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월 바록스스포츠와 M&A를 했다. 스포츠마사지겔과 기능성 화장품까지 영역이 확

대됐다. 시장 환경을 정확히 읽는 것이 관건이다.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와 입점계약을 했고 용인 및 별내휴게소에 직영점을 개소했다.”

-베트남 축구·태권도대표팀 후원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판로개척을 시작했다.

“점차력이 떨어지는 덥고 습한 현지 기후를 고려한 제품을 베트남축구에 납품한 것이 컸다. 신중한 수출전략을 세웠고, 축구 상승세와 함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갔다.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판로를 늘리려 한다.”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도 호평을 받는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선수단에 스포츠테이프를 후원했다. 유도 레슬링 핸드볼 역도체조 태권도 등 종목도 다양했다. 태극마크가 그려진 테이프가 지속 노출돼 매출이 올랐다. 엘리트와 학원체육까지 널리 홍보될 수 있었다.”

-바록스스포츠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면?

“고정적인 매출, 안정적 경영이다. 동시에 동남아 진출을 적극 진행하려 한다. 다음 달 베트남선수촌이 주관할 의학 세미나가 있는데 동남아시안게임(SEA게임)을 앞두고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 트레이닝이 주제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제품을 설명하고 교육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로드FC 스타 권아솔이 6개월만의 복귀전을 앞두고 강원도 원주 치악산에서 구슬땀을 쏟고 있다. “열심히 준비했다. 몸 상태가 아주 좋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권아솔이다.

사진제공 | 로드FC

## 권아솔 복귀전 준비 척척...매주 치악산 지옥훈련

일요일마다 정문홍 전 대표와 동행  
내달 9일 자브로프 상대 부활 각오

ROAD FC 약 6개월 만에 케이지에 돌아오는 권아솔(33·FREE)이 매주 치악산을 오르내리며 지옥훈련을 3개월째 소화하고 있다.

권아솔은 11월 9일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는 굽네몰 로드FC 056에 출전한다. 상대는 사일 자브로프(35·AKHMAT FIGHT CLUB)로 두 파이터의 경기는 메인이벤트로 진행된다.

권아솔은 경기가 확정된 뒤부터 강원도 원주 로드집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로드FC 밴텀급 전 챔피언 김수철(28·원주 로드집)이 모든 훈련에 함께하는 중이다. 로드FC 정문홍 전 대표도 매주 일요일 치악산 훈련에 동행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권아솔의 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권아솔이 최근 가장 힘들게 소화하고 있는 훈련이 바로 일요일 치악산 훈련이다. 가파른 산길을 뛰고, 동료 선수 한 명을 어깨에 메고 오르기도 한다. 앞뒤로 기어가는 일명 ‘악어 자세’는 덩이다. 산을 완전히 올라간 후에도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훈련을 거듭하며 성과도 좋다. 동료 김수철은 30일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스파링을 단 3라운드도 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점차 나아져 7분 5라운드 거뜬히 소화한다. 역대 최고의 몸 상태”라고 전했다.

권아솔 역시 “열심히 준비했다. 몸 상태가 아주 좋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동료들의 도움에 대해서는 “정전 대표님과 (김)수철이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나 때문에 파프 시간, 부상을 얻어가며 스파링해주고 운동을 해준다. 희생해주는 마음에 죄송하기도 한데, 이번 대회에서 최선을 다 해 보답 하겠다”며 투지를 불태웠다.

정문상 기자 award@donga.com

## NFL 재입성 구영희, 애틀랜타와 계약



구영희

미국프로풋볼(NFL) 최초의 한국 국적 선수 구영희(25)가 다시 필드를 누빈다. AP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30일(한국시간) “애틀랜타 펠컨 스가 베테랑 키퍼 맷 브라이언트를 방출하고 구영희와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부모님을 따라 중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구영희는 조지아주 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LA 차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나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해 10월 방출됐고, 신생 풋볼리그인 AAF에서 활약하며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이곳에서 다시 꿈을 키운 구영희는 이후 여러 구단의 트레이아웃에 지워지며 문을 두드렸고, 이번 계약을 통해 NFL로 재입성했다.

고봉준 기자